

고난의 파도를 넘어 - 오정환 자서전 -

오정환

첫머리에

1. 유소년기
2. 파산과 조부
3. 간이학교
- 4.小学校 편입
5. 독학
6. 모교에 취입
7. 불타는 고향
8. 결혼

9. 6.25의 격동
 10. 구산리 32번지
 11. 이월국민학교로 전입
 12. 교감으로 상신학교에
 13. 최후의 근무지 백곡
 14. 고난의 파도를 넘어
 15. 고향에 정착
 16. 성실과 봉사
-

첫머리에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자서의 형식으로 이 글을 쓴다. 실로 고난의 대장정이었다. 이 글은 내 직계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심산이다. 자라나는 내 핏줄들이 우리가문의 과거를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 해로울 것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내 지능 내 행동 다소 과시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한 그대로를 쓰자니 도리가 없다. 이 글은 자손들이 보관하고 음미하

면 다소 처신하는데 참고가 될 줄 안다. 또 선조위선의 마음이 우리날 것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굳세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글 중 작고하신 조부님의 행적이 많이 나온다. 우리 가문중흥의 원훈이시었다. 이 글을 삼가 조부님 영전에 바치면서 사모의 정을 풀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지도해 주신 권영식 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글로 올린다. 아울러 가난한 가정에 출가하여 가시덤불 험로를 같이 걸으며 자기의 건강과 지금의 가정환경을 바꾸어 놓은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 1988년 5월 27일 미국 MIT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 장남 세용이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미국에서 이 글을 쓴다.

야 은(野隱)

1. 유소년기

내가 태어난 곳이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수곡동 123번지 부친이 양자로 들어오셔서 위로 누나 둘을 둔 다음 내가 태어났다. 불행히 누나들은 어려서 사망하여 오남매의 장남으로서 조부의 극진한 사랑으로 유소기를 맞이하였다. 지방의 토반으로 조부는 삼용리 구장을 보시고 종조부는 순검으로 재직 중이고 용인을 두고 영농하는 생활에 그리 부족 없는 가정이었다. 아무 철없는 나는 어른들로부터 총명하다고 칭찬을 들었다니 조부의 사랑이란 짐작이 간다.

어머님은 이웃마을 양성李씨에서 출가해 오셔서 나를 낳으신 후 집안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으셨단다. 고모가 두분, 당고모가 두분 계셔서 서로 나를 업고 싶어서 시새움을 하였다니 감히 애지중지한 모양이 연상된다. 홀로되신 외조모께서도 자주 오셔서 외손자를 보고 가셨단다. 이런 사랑의 요람 속에서 자란 나는 늘 조부께서는 철모르는 나를 해주듯 26대 종손이라고 추켜세우셔서 식구 모두가 나 하나 때문에 희희낙락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초년에 부러움 없이 자란 내가 장차 가난과 거친 세파

에 부딪칠 줄이야 예측이나 했으랴! 이 모두를 운명, 인과응보, 사주팔자 이렇게 돌리고 자위할 수밖에 없다.오남매 중 유독 나 하나만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장차 장손으로 가문중흥의 짐을 지우려는 신의 명령으로 생각된다.

당사자인 나는 곧 닥쳐올 파산의 소용돌이를 예측이나 하였으랴? 천기 대요의 양택으로 풀이하면 당연 그렇게 풀이도 된다. 집터가 조리터라 쌀이 조리에 차면 쏘는 형국이라니 흥망성쇠가 음양으로 좌우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자연의 필연법칙인지 무신론자에게는 가소롭게 평하여 지리라.

2. 파산과 조부

아무 티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내 나이 다섯 살 때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이 우리가정에 떨어졌다. 순검으로 계시던 종조부가 여색으로 조부의 인장을 새겨 막대한 금전을 차용한 후 여자와 함께 사라졌으니,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단다. 보증인을 족치니, 동생이 한 일... 범으로야 인장 사기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으련만, 동생의 책임을 떠맡아 그 부채를 갚았다. 옛날 무슨 큰 재산이 있었으랴. 자기소유의 논, 밭, 심지어 입도 까지 바치고 술 하나 수저 몇 벌 가지고 진천면 건송리 두거니로 떠나셨단다.

내가 그때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조부께서는 남의 소작인으로 직접 등짐지고 영농에 종사하시며 그래도 귀엽다고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나 호구지책이 안되어 6살 되던 가을 나는 부모와 같이 물구리로 오고 조부께서는 성환면 입장으로 금광을 찾아 떠나셨단다. 그 어릴 때 친구 공식이, 풍환이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 백발이 된 풍환이를 진천서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알게 되고 만나 반가움과 어릴때의 과거가 아련히 되살아났다.

공식은 6.25때 전사하였다니 다시는 못 만날 것이고 60이 넘어 재상 봉한 풍환이 하고는 각별하게 지낸다. 입장금광으로 떠나신 조부! 참으로 안쓰럽고 단장의 아픔을 주위에서 느꼈으리... 오호 통탄지사라 자승자박하신 조부, 의리 때문에 가게의 고생을 자초하신 조부! 음력 정월 14일

달이 중천에 떠도 안돌아 오시는 조부! 강당말림에서 조부모를 기다린 우리 어머니와 나. 자정을 넘어서야 그 먼 길을 빈손으로 돌아오신 조부모! 보자마자 귀엽다고 어린 손자를 끌어안으시던 조부! 나는 반가워할 지도 모르고 걸어오신 조부께 인사도 못드렸는지?

지하에 계신 조부모 영혼께 당시의 뉘우침을 사죄한다... 보름명절이라고 떡 한쪽 못하고 식구들끼리 고생담으로 밤을 지새웠으니... 늘 부족한 분이라고 아버지를 걱정하시며 탄식하시던 조부. 그리고 이를 말리고 위안의 말씀을 드리던 조모! 이 광경은 조부께서 작고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루 쉬시고 또 떠나시던 조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던 조부! 나는 무슨 심정인지 똑똑히는 몰랐다. 그리고 2년후 내가 9세 되던 해 봄 조부는 돌아오셨다. 이때부터 나는 우리집이 가난한 가정인 것을 알았다. 가끔 눈치없이 주사 아저씨댁과 진사 아저씨댁에서 쌀밥을 얻어먹고 놀았다. 유기그릇의 쌀밥, 우리는 가난하여 못해 먹는지를 알았다. 나는 조부모 앞에서 가난의 불평을 한적은 없다. 어린 마음에도 숙명으로 해석하였으리라.

그러면서도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일꾼이 없고 큰 소가 없어서 가난한가? 논밭은 동리 앞에 많은데? 수수께끼 같은 동심! 차차 철이 들어서서서히 이유를 알게 되었으리라. 이때부터 조부의 가정교육이 시작된 줄 안다. 너는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는 이유를 조금씩 알았다. 출세해야 큰 소사고 일꾼 두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출세! 주사나 진사겠지. 조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까?

3. 간이 학교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으로 보통학교에 부설한 이년제 속성과정의 간이학교 연령제도도 없다. 주안이 문명퇴치이다. 일개 군에 2, 3개교를 설치하였다. 내가 삼용간이학교에 입학한 것이 9세시 아마 내가 연령이 제일 적었을 것이다. 나보다 12세 위까지 있었으니, 서기 1935년이다. 청소년 종합학교 격이다. 교육과정도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수의 4과목정도로

상당히 높다. 여기도 연령해당자의 삼분의 일도 입학할 못하였으니 빈곤이 보편화된 시대라고 할까?

나는 조부의 교육열로 입학하였다. 1학년 때는 성적이 10등 정도, 2학년 때는 우등상을 탔다. 통신표를 보시고 조부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으니 짝이 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졸업식에서 답사를 내가 읽고 하여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는 안 느꼈다.

당시 학생들은 거의 청년이라 학교실습지가 많았다. 학생들이 소 부리고, 모시고, 벼 베고, 훌륭한 노동자이다. 축산도 하여 소, 염소를 먹이니 풀 베고 겨울철에는 쇠죽 썰어줘야 한다. 밭도 많으니 녹색 사료가 풍부하다. 소 당번 때는 제일 나이 많은 작고한 순석학생과 한 조 이었는데 그가 잠깐 아이기의 불을 맡기어 보는 도중 장작불에 바지를 많이 태워 식구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 벌 밖에 없는 바지.... 어머니께서는 무슨 형질으로 기워 주셨는지?

일학년 때 본교 일본인교장이 왔다. 북어무침에 정중을 대접하는 자리에 먹고 싶어 빼꼼거리다 북어무침을 손에 조금 얻어먹고 맛이 그렇게 좋아 또 갔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자체심보다 공복이 참을 수 없이 작용했던 것인지? 그 시절 조부께서는 진천 장나들이를 자주 하셨다. 따라가려 하면 못 오게 하시어 몰래 먼저 청룡 앞을 질러 개울 건너 가서 기다린다. 거기서 조부를 만나면 “왜 왔어” 하시면서 쫓지 않고 장에 데리고 가신다.

장에 가면 십전짜리 국밥을 사주시고 조부는 안 잡수신다. 그런 대우가 어디 있다고 장날 몰래 안 따라가랴! 그리고 조부는 조씨네 약방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신다. 해가 지려해도 오실 생각 않으신다. 굶으신 양반이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그리 오래 나누셨는지? 간이학교 재학 중 공부 잘한다고 노선생님께서 조부께 칭찬하는 말씀을 가끔 들었다.

당시 모두의 생활정도가 극빈상태여서 설이오기 전에 거의가 식량이 떨어진다. 봄부터 나물죽 그것도 모두 양식을 선 품삯으로 가져와서다. 식민지 수탈정책 결과다. 2학년 때 교실에 마루를 간다고 덕산으로 송판 운반에 동원되었다. 큰 학생은 2매 우리는 1매다. 허약한 체질에 무슨 힘이 있었으랴. 송판 가지고 중간까지도 못 왔는데 어떻게 아시고 조부께서

받으러 오셔서 “에이 참” 하시고 대신 날라 주셨다. 후일 내가 교육자가 된 후에도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의 능력을 생각지 않으신 실수였다고 생각해 보았다.

2년을 졸업하고 진천소학교에 편입을 하려고 수석교사이신 오홍근 당숙께 조부께 따라 가보았다. 어쩐 영문인지 편입을 안 해 주셨다. 조부께서는 “제 놈 신세질까봐 고안 놈” 독백이시다. 나는 2년간 간이학교 재수를 하고 다음 해 이월소학교 시험을 치고 오학년에 편입되었다. 같이 간 상순군 부친께서 그 귀한 떡을 사주셨다. 연이나 어린 가슴에도 학자금 걱정이 되어 안 된 얼굴로 조부께 합격을 고하니 기뻐하시는 모습 지금도 눈에 아련하다.

4. 小학교 편입

소학교 입학으로 책값, 학용품, 우산 등 일체 구입비가 일금 십원의 거금! 이 돈을 조부께서 진천읍 손씨택 고무신 가게에서 차용하시어 모두 갖춰 주셨다. 이 돈은 그 후 금액 반환을 못하시고 작고 하신 줄 안다. 참으로 손씨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교원에 취임한 후라도 갚으려 하였으나 그도 상점을 그만 두고 행방도 몰라 갚을 길이 없었다. 생전을 두고 그분께 미안할 뿐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다.

당시는 중일전쟁의 와중이라 고무신, 양복은 엄두도 못 내고 셔츠 한 벌, 운동화 한 켤레도 없을 때이다. 조끼 없는 동저고리로 짚신과 나무게다로 아침에는 조모가 화롯불에 나 하나만 밥을 해주셔서 아침밥을 먹고 통학하였다. 양복은 졸업 후 서울 고모께서 어떻게 구해 주셔서 입어보고, 운동화는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도 못 신어 봤다.

수업료가 매월 50전 후원회비가 벼 한말씩이다. 수업료는 조부가 늘 장만해 주시고 후원회비는 조모께서 집가리 끝 벼를 부지깽이로 털어 모아 며칠이 걸려 장만해 주셨으니 빈곤을 알 수 있다. 입학 후부터의 책은 청룡 이상길씨 것을 조부가 일을 해주시고 빌려 늘 현책으로 공부하였다.

내 때에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것으로 안다. 다만 겨울 방학 때 휴가숙제(방학숙제)로 내준 짚신도 삼아 갚으나 짓곳은 동기생이 교실에서

신고 다녀 못 내고 처음으로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았다. 그 후 사제 간 같이 교직에 근무 때 그런 과거사를 은사님께 회고담으로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미안해 하셨다.



1941년 3월 20일 이월 공립심상소학교 졸업

전시라 노력봉사를 많이 했다. 송근캐기, 모내기 동원, 벼베기 동원, 퇴비용 풀 깎기 등과 교내작업도 5학년 때에는 상급생은 공부 더하게 두자고 육학년 때에는 상급생이 더 수고해야한다고 등교 때 지게, 낮 가지고 다닌 것이 부지기수다. 선생님의 별명이 “농구실 앞에 모여”였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우관계도 조부께서 간섭하신다. 한동리 J하고는 놀지 말란다. 그 애가 말도 잘 듣고 그 어머니는 아들 친구라고 밥도 잘 주는데 말이다. 그러나 조부의 엄명이다. 그의 가정이 상민이라나. 상민과는 토반이라도 같이 어울리면 안된단다. 비민주적인 봉건사회의 풍토였으리.

가세의 가난은 가중되어 전시하의 소작농의 어려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아버지께서는 신월리 택하씨네 개답 작업에 다니시고 여름철에는 성평뜰로 물 푸러 다니셨다. 부친께서는 가난한 세대주로 영양보충이 충분하지 못하였는데도 중노동에 종사 하신 것이 과거지사가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장수 못 하신 줄 안다. 내 체질도 허약하여 당시 신체검사표를

지금 보면 영양실조 상태가 짐작된다.

소학교 때 성적은 원래 간이학교에서 구경도 못한 음악, 도화, 공작 3과목이 丙이다. 기타는 거의 甲인데 말이다. 59명 중 26등이다. 5학년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 내가 불참한 것은 물론이고 그날 우리 여행 못한 학우 몇은 학교에 나와 거북바위 가서 놀다 헤어졌다. 이때 불평 없는 손자를 조부는 어떻게 보았을까?

2년간 한 선생님께 배우면서 끼니를 부실하게 배우면서도 성실이 결석 없이 통학하였다. 세월은 가고 성적은 향상되어 울고불고하는(당시는 여학생이 많이 울었다)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그날 조부께서는 돈 십전을 주셔서 처음으로 중국집에 가서 우동을 사 먹었다. 그 때 그 맛 지금 Hotel의 뷔페에 비하랴! 우등생이면서 상급학교 진학을 엄두도 못 내고 사실은 소학교졸업도 조부님의 은공임을 당시도 알았다. 유소기에 공부 열심히 하여 출세하려던 꿈은 깨지고 말았다.

5. 독학

1941년 소학교를 졸업하고 조부는 서울의 아무곳이나 취직을 시켜 보시려고 손자를 데리고 상경하셨다. 거북이걸음 목탄버스를 타고 성환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한 것이 해질 무렵이다. 옷은 가마니 처서 바친 대가로 검정광복 5마를 배급받아 바지저고리 해 입고, 신은 어머니가 여자 반장이라 배급 나온 여자검정고무신이었다. 이것을 신고 상경하였다.

아들을 못 두시고 양자에서 태어난 양손, 약간 총명한 혈육으로 아시는 손자 자랑 덕분인지 고모께서도 반가워하셨다. 이때 친정의 장래도 생각해 보았으리라. 느닷없이 딸인 고모에게 손자 취직명령이다. 발이 좀 넓으신 고모께서 겨우 찾아낸 곳이 아현동 포목상점. 주인이 면접하더니 불합격이다.

아무 곳에서도 장사수단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영양실조의 시골소년. 다시 의주로 연초공장 직공시험에도 면접에서 불합격. 이런 상황의 친정 조카 격려와 생부이신 조부의 심정을 위로하려는 뜻에서 화신상회 가서 아는 사람 통해 양복을 한 벌 사주셨다. 그리고 고모부의 헌 내의도

주셨다.

조부께서는 고모부의 구두까지 주라니 이에는 대답을 안 하신다. 대신 질이 좀 나은 계다를 사주셨다. 조부를 졸라 귀가 후 당장 새 옷 입고 새 신신고 동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전시청년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그로부터 조부는 안타까워하시며 장래를 걱정하셨고 나도 진학은 체념하고 가사에 조력하였다.

그때 나의 장래 진로의 전환이 될 상황이 벌어졌다. 모교의 담임이시던 권선생님께서 이웃에 있는 간이학교로 진임해 오셨다. 집이 학교에 붙어있어 조석으로 사택과 사무실을 넘나 들었다. 이때부터 약 1년간 선생님의 바쁘신 틈을 타서 학교 아동들을 가르쳤다. 불법이고 예에도 없는 일이다.

명칭은 조수선생, 농사일 틈틈이 열심히 가르치고 자전차로 선생님의 외지 심부름도 해드렸다. 선생님 서재에 있던 그 많은 장서를 주야로 탐독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더러 꾸중하셨지만 조부께서는 공부 더 못시킨 한으로 방임하셨다. 1년 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는 가망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책을 구해주시고 교원검정고시를 권하시니 나로서는 불투명한 처지에서 노력을 하여 보기로 하였다. 거의가 사전이 나의 교사...

일본어 고문은 정말 어렵다. 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둘째 고모부의 고등학교 책도 빌려오고 일본으로 선생님께서 참고서도 주문해 주셨다. 사방공사장에 나가 번 돈으로 책상도 하나 사고 주문한 책값으로도 충당하였다.

나는 당시 이 고시가 생의 기로이며 지극한 조부의 은총의 보람이며, 유소기시절의 생활정도의 복구를 피하고, 뭇씨일가 흥망성쇠의 기로로 알고 임했다.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고, 겨울에는 방이 추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것으로 고생하시며 묵묵히 매사를 숙명으로 아시고 힘겹게 농사를 짓는 생모, 조부모께 보은하는 심정으로 책과 싸웠다.

독학! 참으로 무거운 짐이다. 때는 2차 대전의 소용돌이라 생활은 점점 더 결핍하여지고 미곡, 면화 그리고 심지어 개, 소까지의 강제공출관계



청소년 시절

등 실로 식민지 백성에 대한 착취였다. 황민화정책으로 그들이 제정 암송케한 황국신민의 서사를 체득해야 배급도 주었으니 말이다.

1945년 1월 10일 결전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청주에서 교원고시가 있어 서류를 선생님이 해주시고 양복까지 빌려주시어 응시하러 갔다. 고졸출신자가 대부분인 수험생들, 전시 징용을 면하려고 몰려든 600명의 응시자들 필기시험 합격자가 약 40명, 이 중에는 10명의 국졸들이 끼어 있었다. 모두 발군의 노력가들이다.

합격통지서를 받으시고 전하러 오신 선생님, 조부와 같이 파안하신 모습,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까지 기억하리라. 몇 일 후 B-29가 내습한 도청에서 면접에 합격하고 10일간의 재교육을 받고 합격증을 받았다. 말직이나마 출세하여 가족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빈곤에서 헤어나오려는 작은 희망이 이뤄졌다. 가운데 노력 어느 것인지?

6. 모교에 취임

1945년 봄 모교의 교사로 취임하였다. 19세의 봄. 일제의 최후 몸부림 속에 그들의 패색이 짙을 때였다. 양복과 신이 있을 리가 없다. 양복은 무명에 물들인 감으로 그것도 식구들은 안해 입고 새것으로 해주시고, 신은 사방공사장에 나가 2년 전에 배급으로 얻은 것을 기워서 신고, 외투는 은사님의 학생시절 입으시던 헌 것이었으나 형극의 길을 헤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가족들의 환희 속에 취임하였다.

대망의 공무원이다. 즉시 일반인에게는 안 되는 식량배급 카드가 발부되고, 교원가족이라 가마니공출 할당이 훨씬 줄었다. 6학년 학생과의 연령차가 2,3세 정도. 55원의 월급(당시 쌀로 35말) 꿈만 같은 얘기다. 영양실조로 밀대 같은 나에게 20세 안팎의 여자 연소생까지 경례를 하니 제

왕이 된 기분이다. 수석교사의 지시로 매일 수업안을 쓰고 2학년 담임으로서 집무하였다.

전시 하 초등학교 학생도 노력동원이 많았다. 비행기 연료용으로 송근을 캐고 방공호의 구축, 농촌의 일손 돕기 등 많은 시간 어린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첫 월급을 전해 받으신 조부의 감회는 어떠하였으랴? 과거 담임이신 권선생님이 근무상의 세밀한 주의까지 해주셨다. 부임 3년 후 주번교사의 당번이었다. 전일부터 걱정이 태산 같으나 조회단에서 어떻게 얘기하랴? 결국 못하고 수석교사께서 단 옆에 세워놓고 주훈과 주의사항을 대신 얘기하는데 일본인 교장도 목인이다.

자고로 그런 불충분한 교사가 어느 하늘 밑에 존재하였으랴? 술, 담배, 전연 못하나 한번은 배급 나온 탁주와 실습지생산의 감자로 직원회식이 있었다. 일본인 교장이 내미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아 사양 못하고 마신 후 몹시 고생하여 비실거리는 꼴을 보고 직원들의 폭소가 터졌다. 누나 같은 여직원들이 있어 무안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내가 후일 자제 못할 정도로 통음 하였으니...

미군 그라망 함재기가 학교상공을 나르고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되고, 일본 히로시마가 원자폭탄 세례를 받더니 역사적인 조국광복을 맞이하였다. 일본인 교장이 평소 착실하게 보았던지 공부를 더 시켜줄테니 일본으로 같이 가잔다. 그러나 내 나름의 광복의 환희에 가득찬 조국과 패망의 일본을 비교하여 거절하였다. 이때 따라갔으면 인생의 기복이 뒤바뀌어 졌을지도 모른다.

햇병아리 교원이라 해방 후 공무원에 대한 보복적 폭행이 심하였으나 별문제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차차 심신이 가다듬어져 주변도 하고 교사들 틈에 끼어 동료행세도 하였다. 그러나 그해 겨울 그렇게 귀여워하시며 장래를 기대하시던 조부께서 득병하시더니 이듬해 2월 별세하시고 가운인지,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시다 가실 팔자신지 24일 후 조모께서도 위경련으로 돌아가시니 인생무상, 비통한 허무감만 들었다. 노후 남과같이 공양도 못해 드린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지금도 기제일에는 가족들에게 당시 얘기를 해준다.



1950년 4월 학성초등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불효부모사후회일까? 덩달아 그렇게 사적으로 까지 총애하시던 이웃 학교의 담임이시던 권선생님께서도 문백초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시어 떠나셨다. 나는 몇 달간 공석중인 이웃인 학성초등학교(간이학교가 초등학교로 승격되었다)로 파견되어 보충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우후죽순처럼 설립 운영된 대학교육기관에 질은 동경과 향학의 집착을 느껴 2단계 고학의 꿈을 키웠다.

7. 불타는 고학

2년간 교직을 사임하고 서울 경희대학교(당시는 신흥대학)의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정규고졸이 아니었으나 교원고시가 인정되어 입학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겨우 가난에서 탈피하려는 차제 부모님에게는 여간 죄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나 만류하시지는 않았다. 학비를 축적한 것도 아닌 상태라 고학을 각오하였다.

파산의 장본인이신 종조부도 숙식을 제공하시기로 약속을 하시어 인천 주안에서 기차 통학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방 후 좌우익혼란 와중이라 자

연 학원도 시끄러웠다. 학도호국단이 발족되던 때다. 약 1년 주안에서 통학하다 여건이 안 맞아 서울 신당동 3당숙택에서 숙식하며 통학하였다.



1949년 신흥대학교(현 경희대학교) 정경과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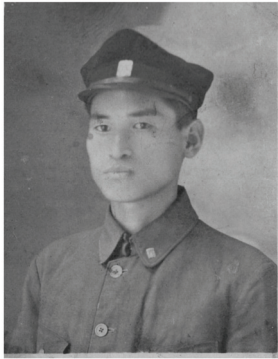
정규대학의 수학이라 첫째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고민도 하였다. 서울 서의 통학은 점심이 없는 때라 젊은 혈기에 공부도 인내하여야 했다. 이를 극복하고 남산시립도서관에서 주로 공부하였다. 초창기의 학원이라 숙명여고 뒤의 가교사에서 지내니 운동장도 없는 낡은 교사였다.

하교길 숙명여고생들 여자호국단 훈련모습을 쳐다보며 조국의 장래에 일말의 위기감 마자 느꼈다. 등록금 때문에 새로 맞춰 입은 외투도 팔고 학용품을 연고학교 직원들에게 판매를 위촉하기도 하고, 백두산 양철 사슬담배를(당시 30갑이 한 보루였다) 이리, 안양 등지로 지고 다니며 팔기도 하여 충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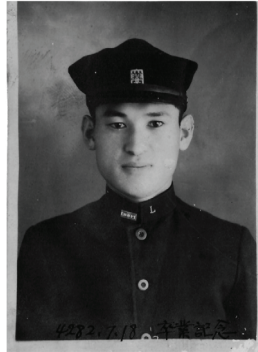
진천서 천안 동면과 북면의 소로길을 민씨와 같이 지고 갈 때 이런 고행을 하여야 하나도 자탄하여 보았다.

그러나 꿈이 너무 컸다. 정치경제과를 이수하여 장차 무엇이 되려고 하였는지? 건디다 못해 졸업 전에 비공식으로 초등학교에 복직하였다. 매사 순리가 있고 노력도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초등학교에는 교사

로 복직이 되나 중학교에는 준교사로 밖에 안 되어 조그마한 자존심도 억제하였다. 후일 초등학교 정교사로 의무교육 요원으로 국방부의 요원증이 발부되어 병역이 보류되었다. 지금 졸업장을 보면 이모저모 감회가 새롭다.



1946~1949년 신흥대학교 재학



1949년 7월 18일 졸업

8. 결혼

1949년 3월 19일 우리 가정에 일대전환기가 될 장자인 내가 결혼을 하는 날이다. 처가는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함양싸씨 종가란다. 돌아가신 조부께서 그 당내에 중매를 한 인연으로 내가 그 당내질녀인 아내를 신부로 맞게 된 것이다. 당시 서로보고 결혼할 때가 아니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임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23세의 청년교사로서 꿈도 가져보고 설계도 가져볼 나이이나 빈곤이 또 문제다. 신랑이라는 명색이 새 옷 한 벌 못해 입고 고모부의 양복을 빌려 입고 가야할 처지, 당장의 잔치준비 그리고 식량도 없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우선 용절이 장근씨 댁에 가서 사정을 해보았으나 유족한 그분이 매정하게 거절한다.

이 부끄러움, 없는 서러움,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월촌으로 가 박성규씨께 사정하니 “안됐네” 하시며 다음날 용인을 시켜 며 5말을

보내주셨다. 값을 생각 말라며, 참 구휼이라 할까 격려라 할까 평생을 두고 잊지 않는다. 구걸과 결혼, 양자택일 했어야 할 중대사! 백부님의 도움과 주위 분들의 호의로 가마타고 처가에 가게 되었다. 양복 입은 신랑(그때는 모두 한복을 입었다), 진풍경이었으리라.



1949.3.19. 결혼 무렵 처 사진

첫 날밤 아내에게 가정 사정을 대개 얘기했었다. 처가는 유족한 편으로 혼수도 꽤 많이 장만한 모양이다. 장인께서는 다음날 신행길에 우리집 사정을 아시고 소로 혼수를 실려 보냈다. 신랑이며 세대주인 나, 심정이 착잡하다. 그때부터 아내는 각오한 모양 유족한 가정에서 빈곤한 가정으로 환경이 바뀌었어도 참고 지내 주었다.

여자의 숙명으로 알았는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이때부터 미안한 생각이 그 후 약간의 전답을 장만하고서야 가시었다. 마지막 대학등록금을 장인께서 무극까지 쌀을 소에 싣고 가셔서 장만해 주셨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존심이 작용하리요? 내가 음으로 양으로 후덕하고 남에게 선심하시고 위선하시는 장인의 감화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생 끈게 적덕하시고 살아오신 분이 노후에 평탄치 못한 가정환경으로 와 석중신을 못하시었으니 응보의 길도 없으셨으니 가련하시다. 돌아가신 장인의 평소 총애와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성심으로 초중수묘에 진력하였다.

결혼 후 내핍일관으로 생활하고 자녀교육에만 전념한 아내의 내조의 덕 알고도 남는다. 재산증식과 자녀교육 2가지를 함께 목표로 하여 살아온 아내, 청춘도 사랑도 다 받쳐 자기희생을 돌보지 않아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두 가지 목표와 건강이 바뀌었다. 아내의 성격은 유별나다. 부부간인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 가면인지 진심인지! 이제 만사휴애

로다. 노후에나 평안히 지내게 해줄 의무를 느낀다.

9. 6.25의 격동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인 동란이 발발하였다. 사상과 이념논쟁을 떠나 같은 민족끼리 해방의 환희가 엇그저께인데 무슨 불장난인지? 그리고 그 결과 예측이나 하였는지? 참으로 원통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전장만 시작하면 남한의 인민들이 호응하여 적화가 된다는 망상아래 동족상잔의 도륙이 전개된 것이다. 그 결과 수백만의 사상자가 생기고 수많은 이재민 그리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니....

당시 옥동학교재직 중 남하도 못하고 직장을 사수하다 인민군의 남침을 맞았다. 숙직 중 진천침입이니 말할 나위도 없다. 곳곳에 포고문이 나붙고 장총을 맨 무장군인의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내가 앞장서 전 직원 진천내무서(그들의 경찰서)로 자수하러 갔다. 같은 민족인데 빨간 건장의 인민군이 그 어찌 무시무시하던지?

생사여탈을 그들에게 맡기고 서내로 들어가서 훈시조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며 귀교하여 운명을 기다리다 그들의 강압으로 전 시하 인문학교 교원이 되었다. 학생도 등교 않거니와 교재도 없다. 부락을 순회하여 그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인구조사, 위문표 수집, 그들 선전원의 수행 등 그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

다행히 교내에서는 좌익계의 교원이 한명도 없어 매사 흥금을 트고 협의하여 대처했다. UN군의 공습에 방공호를 파고 학교는 의용군의 훈련장으로 내어주었다. 낙오가 되어 학교로 온 4명의 인민군과 며칠을 지내보니 젊은 인민군의 사상무장이 철저하다. 국방군의 복침으로 인민을 해방시키러 왔단다. 독일제소총을 저희들의 제품이라고 미군에게서 약탈한 군복을 개조하여 입고도 뻘뻘스럽다.

하루는 무명에 염색한 복장을 입은 낯선 사람이 오더니 평북 태천에서 옥동공립인민학교 교무주임 발령을 받고 주야로 걸어서 부임하는 교원이란다.

그들은 이미 통일이 되는 줄 알고 모든 조직을 서두른 것이다. 연일

대구가 함락되고 부산해방이 되어간단다. 무식한 농민에게 양민의 가택에서 약탈한 옷을 입히고, 면 인민위원장이라며 소위 교양에 열을 올린다. 식량을 그리고 소, 개까지 약탈한다. 참으로 전도가 암담하다. 수차에 의한 의용군모집으로 청장년은 그들의 총알받이가 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불가항력의 소치이다.

이때 동생 태환이도 의용군에 끌려가 떠날 때는 보지도 못하고 혈육과 생이별을 하였다. 눈물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휴전 후 돌아오기는 했다.) UN 군의 비행기는 수없이 뜨고 어느 하늘아래서 동생은 무주고혼이 된 줄 알았었다. 동리마다 피난민이 들끓어 누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

문명의 이기도 버리고 소가 끄는 돌매방아로 보리도정을 하여 호구를 하였으니 남하 못한 백성들도 많은 고초를 겪었다. 무식한 족속들은 총을 메고 설치며 텃논을 분배한다. 카인의 후예도 못되는 열갈이들이 그들의 전위가 되어 날뵈다. 믿을 사람은 자신과 가족뿐인 상태, 생불여사란 이럴 때를 말함인가?

이 상황이 9월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잘도 참고 견딘 민족이리라. 수복 후 부역자라고 심사를 받았으니 이치에도 안 맞는다. 결국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후 복직이 되었다.

10. 구산리 32번지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32번지, 이곳이 처가의 주소지이다. 아들 없이 과년한 딸 출가시키며 일손 손에 잡히지 않고 곤경에 계시다는 장모님을 위하고, 심기일변 삶의 터전을 잠시 옮겨보려고 처가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하였다. 직장도 가깝고 두 분만 계시는 집이라 적적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이다.

본가인 수곡 집에는 식구가 많고 여동생도 있어 임시로 지낼 만 해서이다. 군내에서 역사가 있는 옥동초등학교 24세의 교무주임으로 부임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소위 큰학교 그리고 교무주임 이때부터 약간 우쭐해서 인지 술을 시작했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고 위대

(?)한 줄 알았다.

UN군에 쫓기며 패망한 김일성의 인민군대를 지원한다고 수십만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 인해전술로 물밀듯 내려왔다. 전세가 바뀌어 UN군은 이북에서 철수작전을 감행하고 38선 부근에서 제한전, 소모전으로 들어갔다.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나? 대한남아 가는데 초개로구나” 군가가 유행되고 이 나라의 청장년이 징집소집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나는 정교사로 전시 후방요원이란 명목으로 국방장관의 요원증을 발급받아 소집이 보류되었지만 젊은 교사들은 징집 소집으로 용약전선으로 향하였다. 중학교 준교사로 갔으면 요원책정이 안되어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리라. 개인적으로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웃어볼 수밖에...

군 장학사이신 이우영 선생님이 영장을 받은 교사들에게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가야되고 교육을 위해서는 보류가 돼야할 텐데” 하시는 명언이 있었다. 전시라 봉급은 명목뿐이고 식량 배급이 큰 도움이 되던 때이다. 부형들도 담임을 극진히 위할 때이고 교무주임이란 자리로도 대접이 있었으니 방과 후는 거의 매일이고, 일요일마다 술을 폭음 하였다. 체력도 감내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인줄 알았다.

심지어 부형들과 술 시합을 할 정도의 통음이었다. 새로 부임해 온 사범학교 졸업한 교사들은 주량검사 후 양천교 라며 음주 훈련을 시킨 교무주임! 그런 중에도 교내 근무는 충실히 하고, 교장선생님은 신임을 하시고, 교감은 처남이라 모두가 호조건이었다.

전시중이라 질이 낮은 국산 위스키가 범람하고 탁주, 소주의 소비가 잘 될 때다. 1951년 초평학교 시대는 더 했다. 술이 세다는 금한부락을 조석으로 거쳐 통근하고 매일 수렵꾼이 냇가에 끊이지를 앓을 때다. 공비 토벌의 충성도 아랑곳없이 그저 시간나면 음주하였다. 그 때 다정한 덕산 출신 남순경도 위를 버려 지금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취하며 지낸 초평의 2년, 밤 12시도 아랑곳없이 험산을 넘어 통근하면서.... 천하에 없는 무리다. 역발산인들 건강에 무리가 안 오랴?



1951년 4월 1일~1953년 3월 30일 초평초등학교 재직



1951년4월1일~1953년3월30일 초평초등학교 재직



1951년 8월5일 초평초등학교 제25회 졸업기념 사진



1952년 3월 26일 초평초등학교 제26회 졸업기념 사진

옥동학교로 다시 와서 근무중 교감강습 지명을 받고, 우량 교육공무원으로 도지사의 표창도 받았다. 4일 9일의 덕산 장날 교감에게 면에 불일이 있다고 일방적인 신고만 하고 종료들 앞장서 뒷 교문으로 빠져 술타령 간다. 석양에는 도장동 장꾼과 합류가 된다. 밤 10시고 11시고 관계가 없다.



1954년 3월 옥동초등학교 재직교사들과 함께 기념사진



1954년 3월 22일 옥동초등학교 제30회 졸업기념사진(당시 교무주임)

면내 각 기관에서는 술 세다고 영웅시?하고 처가동리 사람들은 술을 잘 사니 모두 따라 다닌다. 이때를 생애 최고의 시대로 착각한 셈이다. 후일 이때를 건강의 분수령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전시수당으로 받는 양곡은 우리 내외 식량이라며 처가로 가져갔다.(이 쌀은 장인에게서 이자까지 붙이어서 처음 토지를 살 때 보태 주셨다). 생전 처음 부동산을 장만한 감격! 우리 내외 둘이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여기서 세희, 세연 두 딸과 장자인 세용을 낳아 식솔이 5인의 세대주가 되었다. 아내는 여전히 어린것을 업고 나무를 해 나르고 나는 열심히 술 먹고 철저한 불협화음이다. 구산리 6년간의 방종생활이 나이가 든 지금도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11. 이월국민학교로 전임

1957년 4월 1일 희망도 없이 돌연 이월학교로 전근발령을 받았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 교장실에서 발령장을 찢어버렸다. 교육청 처사가 불만이다. 할수 없이 2월 교육청에 들러 내막을 알아보니 직원 조직상 발탁하여 전임교무주임으로 보낸다. 수궁이 가고 모교인이라 착실히 근무해 보려고 다짐하였다.

군내 또는 군외에서 B. K. H. 교사도 차출되어 왔다. 분교까지 27학급, 모교출신으로 교무의 직책이 막중하다. 약 30여명의 교원 중 모교출신 교사들이 과반수이다. 이들을 독려하고 화합함으로 차차 교내질서가 잡혀간다.

더욱이 많은 간접 제자들이 자진 협조해 주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어갔다. 교육청에서 학교가 쇠신됐다고 인정 해준다. 여기서는 또 몸에 해로운 담배를 굳세게 피워냈다. 시장에 나가면 고향친구들 그리고 동창들 반갑다고 술, 모교에서 잘하라고 술, 일요일이면 직월들 가정에서 초대 이래저리 술의 자제력을 잃었다. 그래도 전임지 보다는 조심이 된다. 고향, 모교 이런 관념들이 자책을 불러일으킨다.

연구발표로, 대외적인 체육대회 성적으로, 군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군교육감의 특명으로 직원을 개편한 보람이 났다고들 했다. 여기서도 아내의 극단적인 내핍생활은 계속되어 문전옥답을 3,400평 정도 샀다. 좋은 반찬 없는 약식, 자진한 숙직실 살림으로 연료대가 절약되고 술값도 절약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직 크지 않은 애들이 조식에 잘 참여 주어 죄스럽고 고마웠다. 그 당시 직원 중에 교감, 교장들에게 아부하여 직원들과 이간시키는 무리가 있으나 감불생심 전체직원의 분위기는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한때 교무인 내 근무성적은 하로 평점 보고 되었으니....

그때 교감의 인격 참으로 한심하였다. 정당한 발언과 자기에게 맹목적인 아부하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을 근무성적으로 보복한대서야? 후일 나는 교감이 되어서도 그 일을 생각하고 주체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때는 되어 가만히 기다리던 나에게 승진의 차례가 왔다.

새로 임지도 미리 알고 있던 중 4.19의 와중이라 대통령이 결정되자 않아 발령 대기 중에 임지가 바뀌어 상신학교로 9월 12일자로 발령이 되었다. 27학급의 전임교무로 있다가 6학급의 교감으로 가게 되니 허전한 감이 들었으나 관운으로 돌리고 금의환향한다고 농담을 하며 이월국민학교를 떠났다.



1958년 무렵 이월초등교 교무



1959년 무렵 세희,세연,세용,세호



1959년 무렵 이월초등학교 재직시절 가족들



1958년 3월 15일 이월초등학교 제37회 졸업기념사진(당시 교무주임)

12. 교감으로 상신학교에

1960년 9월 12일 고향의 학군인 상신국민학교로 부임하였다. 직원조직이 상식적으로 불편하였다. 교장은 과거 같은 학교에서 농으로 지내던 L씨, 교무는 한동리 사람, 심지어 전달부는 간이학교 동창생... 분위기가 어색하였다. 나는 교장과의 위계질서를 지키니 교장도 친분으로 대하고 전달부에게는 경어를 쓰며 직원들께도 나와의 관계를 알려주었다. 이는 모두 지엽적인 문제고 고향학교라는 관념이 차 있어 성실히 근무하였다. 일요일에도 많이 출근하고 방학때도 거의 출근하였다.

교장을 도와 교사의 증축, 운동장의 확장, 정원수식재, 실내비품의 정비, 경제적인 악조건 하에서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부형들의 노력으로 개척하고 직원들은 형제같이 단합시켜 추진하였다. 물이 귀한 지대라 양동이로 물을 먼 곳에서 날라 수목을 하고 관리하려니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교육청에서 가끔 와보고, 격려 끝에 특별시설의 혜택도 많이 받았다.

연이나 학구 내 절반이 정착난민으로 이를 일컬어 합중국학교라 농담하였다. 모두 생활이 어려워 자녀교육에 열은 있었으나 물질적 후원은 바

랄 수가 없었다. 대신 원주민인 신월, 삼용, 미잠분들이 많이 심려해 주었다. 혁명의 와중이면서 지시대로 근무하고 열성껏 학교운영을 하니 신분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병역미필이란 이유로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합법적인 병역면제자로 근무하던 2명의 교사가 면직되니 속수무책이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더니 그들은 바로 복직이 되어 지금껏 근무 중이고 나는 20여 년 전에 이미 교직을 떠나 위치가 바뀌었다. 교감으로 부임하여 절주의 노력은 하였으나 신설교로 특히 이북출신 학부형들의 매일 심방으로 안주 없는 막소주를 계속하니 위의 불건강이 가속된다. 5년간의 근무를 한 후 면소재지 학교랍시고 백곡국민학교로 1965년 3월 1일자로 전출 발령을 받았다.



1960년대 초 상신초교 동료교사들과 1965년 상신초 근무를 마치며



1963년 2월 13일 상신초등학교 제2회 졸업기념



1960년대 초 상신초등학교 교감시절 동료교사와 함께

13. 최후의 근무지 백곡

1965년 3월 1일자로 백곡국민학교로 진출되었다. 부임해보니 직원들 사회성이 벽지인 상신교와는 다른점이 많았다. 전임자가 학교의 채무를 남기고 떠나 재정에 압박을 받게된 중에도 같이 부임한 B교장의 계획없는 금전지출로 곤욕을 겪었다. 그의 성격이 남달리 유아독존이다. 중간관리자로서 남모르는 괴로움을 겪었다.

다행히 학부형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고 진학반 담당이 혼신으로 노력을 하여 군내 중학교 진학률이 수위를 차지했다. 학교운영의 척도로 집약 평정되어 부형들은 환호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원래 백곡이 산악지대라 나무가 흔하고 석천이라 민물고기가 흔했다.

들녘에서 자라온 나는 이것도 위안이 되고 휴양지와도 같아 휴일이면 진천 저수지로 낚시가고, 부락을 탐방하니 심신이 새로워지고 한가롭다. 교감사택 바로 밑에 사는 K는 불구의 몸이나 사람이 활달하고 인정이 많아 친형제같이 지냈다. 조석으로 만나고 매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 신세를 진 분이다. 그런 그가 얼마 있다가 고혈압으로 타계하니 인생무상을 다시 한 번 느낀다.



1966년 무렵 백곡초등학교 교감 재직 시절 동료교사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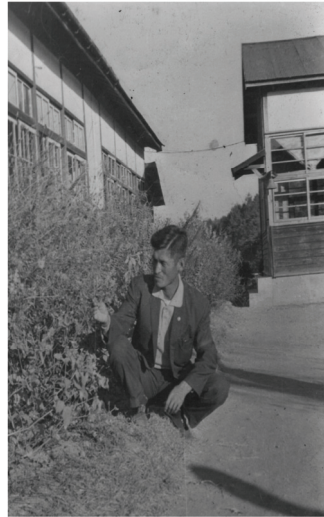
뺨어가는 칩도 한이 있다더니 가정의 경제가 자식들의 학비와 동생의 학비로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약간의 토지가 있어 그렇게 고생정도는 아니었다. 군내 연구발표회도 한번하고 안착되어 근무 중 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20년 이상 근무자는 일시불이 안 된다고 한다.

책임자하고도 위화가 계속 중이고, 당시에는 퇴직자의 복직이 쉬울 때이고, 교장강습 지명까지 받은 처지에서 복직 시 어색할 것도 같아 동기생인 L장학사와도 상의한 후 퇴직의 용단을 내리고 사직원을 냈으나, 교

육장이 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상청을 촉구한다. 무슨 강골이라고 서둘러 짐을 챙겨 고향인 삼용으로 와버리니 20여년 교직생활의 종지부가 되었다.

인간만사 전도를 알 바 아니고 최선을 다한 행동이다. 환경이 역전이 되어 결과는 형극의 길이 놓여있는 줄이야! 경솔이 통탄스럽고 후회막급이며 처자보기도 미안하여 당분간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문교당국이 교원의 이직이 많아 내가 사직한 후 복직의 연령을 40세로 제한한 것이다.

6개월 후 청원군으로 복직하여 자식교육상 또는 경제상 청주에 기반을 잡으려던 나름대로의 꿈이 깨진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랴! 무슨 말로 가족에게 사죄하랴. 진격중인 사단장이 포로가 된 것이다. 가족을 고생의 진수령으로 몰아넣는 중죄인이 된 것이다. 평생을 두고 뉘우칠 단장의 고난을 자초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아내는 추궁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인지! 아량인지!



1965년 3월 1일부터 1969년 4월 12일까지
백곡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14. 고난의 파도를 넘어

1968년 4월 12일 교직을 사퇴하고 앞으로의 설계에 의하여 대기장소로 택해 우선 임시로 마련한 집이 청주시 미평동 변두리의 허술한 3간집. 여기서 만 5년을 실의와 곤경을 치룬 곳이다. 같이 있는 교원의 고향으로 다소 마음을 의지할 수가 있었으나 객지임에는 별수가 없었다. 희망도 없거니와 할 일도 없다. 좌절과 무료 참으로 괴로운 시일이였다. 갈데도 없거니와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우선 방이 비좁아 장인의 노고로 뒤에 조그만 방을 달아내고 변소도 꾸미고 닭장도 지었다. 좁은 마당에 식수용 샘을 팠다. 연이나 낡은 집이라 비가 오면 비가새고 겨울에는 한기를 느낀다. 자식들이지만 모두 착하게 불평없이 공부에 전심하였다. 미평에서 70년대 초 두딸이 교육대, 장자인 세용이가 청고, 세호가 세광중, 세관이가 대성중, 세순이만 초등학교다. 세용이가 싹이 있어 격려를 하였다.

그곳이 시의 변두리라 거의가 농가다. 농번기에 모두들 일하는데 혼자 지내기가 더 어색하여 이웃집 모내기때는 못줄도 띄어 주었다. 그것도 매일 종일하니 다리가 아프다. 보험회사에도 몇 달 다녀 보았으나 있을 직장이 못된다. 이웃사람이 경영하는 프린트사에 나가 교정을 보아 주었다.

몇 달 후 그분이 적자를 감당 못하고 피해버렸다. 종업원들이 선생님이 맡아 해보라기에 무료한때라 사업이라고 착수를 해보았다.

“상산프린트사” 연고 찾아 일감을 구하니 교육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것도 사업이라고 매일 술을 접대해야 하니 자연 같이 술을 들게 된다. 어린 종업원이 하루는 밤까지 손님하고 16회나 나갔다고 저도 걱정한다. 정시의 식사가 안되고 술이니 건강에 극해다. 한때는 사무실을 확장해서 대규모로 하려 하였으나 아내가 반대한다.

전도가 막막하여 친구들과 상의하여 보아도 별무신통. 1973년 큰딸 세희는 교대를 마치고 미원 어느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나가있었고, 작은 딸 세연은 교대 졸업때가 되고, 이때 장자 세용이가 서울공대에 합격하여 모처럼 식구들의 환회에 넘친 웃음이 나왔다. 프린트사에서 적자는 면하고 있던 중 큰딸 세희가 제가 동생들과 청주서 지내 볼테니 부모에게는

고향으로 가시란다.

차라리 농토 남주느니 일꾼을 사서 직접 영농을 하시란다. 심사 끝에 자식들에게 단주를 약속하고 내외가 1973년 무렵, 고향 집으로 복귀, 금주의 약속 지키며 감냥껏 열심히 영농에 임했다. 내 생각에 획기적인 결심을 한 것이다. 내 토지 내 땀으로 가을에는 황금의 물결이 전답을 넘실댈 때 마음에 주는 위로, 비로소 심신의 움추림이 활짝 펴진다. 미평 5년간 위로 격려를 해준 L. H. 두 선생님께 감사한다.



1970년대 초 미평시절의 가족사진

15. 고향에 정착

1973년 봄 두 내외가 농사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전답이 있어 영농의 기반은 있다. 새사람이 된 기분으로 청주에 떼어놓고 온 자식들 생각하며 단주하고 열심히 했다. 원래 농사꾼이 아니지만 남들이 할 때에는 해야되고 서로가 경쟁의식이 생긴다. 소도 기르고 하여 힘에 겨웁게 영농에 임했다. 품삯주고 인부사서 하던일을 한가지씩 직접 해 나갔다. 작농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늙으신 어머님도 도와주셨다.

아내는 더했다. 어두울때 들에 나가고 어두울 때 들어오고 쉬지도 않고 하였었다. 무쇠가 아닌 아내의 건강이 용케도 10여년을 지탱해 왔다. 74년경 부터 통일벼 계통 조생종 신품종이 나와 농촌에 녹색혁명이 일어났다. 다수확으로 모두 개량이 되고 정부수매로 차차 농촌의 자립현상이 나타났다. 추곡수매가의 상승폭이 농업협동조합이자를 육박하였다. 중농정책의 보람이다.

세희, 세연 두딸이 초등학교 선생을 하며 동생들 학비를 대주어 형편이 나아지고 하여 우선의 궁핍은 면하게 되었다. 아내의 노력으로 집 앞은 1,000여평을 또 구입하였으니 모두를 아내의 건강과 바꾼 셈이다. 나도 가능한 한 남의 신세 안지고 살려 노력하였다. 미호천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야산개발이 시행되어 조부께서 물려주신 차동 3,000여평 산이 밭으로 변하였다. 조부님의 은덕이다. 굵으시면서 산을 2필지씩이나 보존하시고 물려주신 조부! 이 산이 지금은 농경지로 변하여 재산이 되었으니 말이다.

신월리 산 처분하여 앞에 논 400평을 장만하고 텃밭도 논으로 개량되어 모두 8,000여평의 토지를 갖게 되니 동리사람들이 부자란다. 어렵게 그것도 딸들 도움으로 6남매 대학교육 마치고, 직계가 모두 대졸이다. 크나큰 소원이 이루어져서 가문중흥의 서광이 비쳐온다. 암흑의 시대는 불식이 되고 광명한 신천지가 전개되는 느낌이다. 교직사직의 미련도 사라졌다. 모두 이 공을 선비의 몸으로 자손교육에 진력하신 조부님과 억척스럽게 가난을 물리친 아내에게 돌린다.



1970년대 진천으로 귀향한 후 부친, 모친과 함께

16. 성실과 봉사

내 나이 62세, 지나온 길은 가시밭이 더 많았다. 모두를 인내로 극복하고 타개하여 재기한 셈이다. 나는 이때까지 남에게 죄스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인생관을 성실과 봉사로 정립하고 살아왔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개척정신도 발휘하고 극기도 할 줄 알았다. 자녀에게 선조의 위선을 인식시키고 조국애를 심어주었다. 기나긴 험로를 고틱을 같이하며 아내와 같이 걸어왔다.

만약 내가 중도에서 좌절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참으로 지금와서는 다행한 일이 되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 싶다. 대우가 탐 안나고 고관이 부럽지 않다. 먼 시대에는 몰라도 자손 당대에는 큰 고난은 없을 것으로 안다. 내 핏줄은 형제끼리 사촌끼리 협조할 것이다.

또한 나는 봉사의 반대급부를 바라며 사리사욕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내 행동을, 약간의 내 공을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없다. 정도를 알고 가면 되고 내 희생이 적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자립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공수래공수거 깨끗하게 살아가련다. 성실일관으로 살아가면 신의 가호가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살련다.

가훈을 義와 正(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한다)으로 삼으며...

【著者紹介】

야은(野隱) 오정환(1927~2006)

1927년 忠北 鎭川郡 梨月面 三龍里 水谷洞 123번지에서 출생(해주 오씨 26대 손)

1935년 삼용간이학교 입학

1937년 삼용간이학교 졸업

1939년 이월공립심상소학교 편입

1941년 이월공립심상소학교 졸업

1945년 이월공립심상소학교 교사 취임

1946년 학성초등학교 파견

1946년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 입학

1949년 3월 함양 박씨와 결혼

1949년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 졸업

1950년 옥동초등학교 교무주임

1951년-1953년 초평초등학교 교사

1953-1957년 옥동초등학교 교무주임

1957-1960년 이월초등학교 교무주임

1960년-1965년 상신초등학교 교감

1965년-1968년 백곡초등학교 교감

1968년 4월 교직 퇴임 후 청주시 미평동으로 이주

1968년-1973년 상신프린트사 운영

1973년 진천 이월 귀향

1988년 5월 27일 “고난의 파도를 넘어” 집필

2006년 4월 9일 별세